

롱드르거리와 아엔데거리의 모퉁이에서
(1938-1954)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Rosa Maria Unda Souki



베네수엘라 출신의 작가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일상성과 기억을 키워드 삼아 2012년부터 프리다 칼로의 '푸른 집'에 관한 도상학적이고 역사적인 리서치를 지속해왔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을 그녀의 삶과 예술이 머물렀던, 그리고 여전히 그 기억으로 가득찬 공간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점은 신화로운 머물던 프리다 칼로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더불어,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여성의 삶을 본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지점을 확보합니다.

Rosa Maria Unda Souki has continued her iconographic and historical research on Frida Kahlo's old house, La Casa Azul, since 2012. It is a significant project that a young Latin American woman artist revisits the life and art of Frida Kahlo, a representative woman artist in Latin America, through her space of life and art. It gives a meaningful occasion to think over again Frida Kahlo, who only stayed in myth, as well as to reconsider a woman's life revisited from a woman's perspective.

회화, 잊지 않겠다는 약속

Painting, a Promise Not to Forget

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다. 심 없이 흐르는 시간은 현재의 매 순간을 과거로 만들고, 과거가 되어 버린 현재는 필연적으로, 상당 부분, 잊혀진다.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겠다는 것은, 그렇기에,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학자인 앨런 콘피노가 지적했듯이, 기억이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감각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감각을 재구성 해내는 방식과 이를 위한 노력은 생물학적 시간과 물리적 시간의 비가역성(非可逆性)에 맞서려는 인간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억은 현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과거가 되어버리는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기도, 일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의 행위로도 이해되는 것이다.

자, 여기 톱드르가와 아엔데가의 모퉁이에서라는 제목의 프로젝트가 있다. 톱드르가(街)와 아엔데가(街)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된 곳, '푸른 집'이라고 불리는 그의 생가(生家)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프리다 칼로 미술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이 집에서 프리다 칼로가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푸른 집은 프리다 칼로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며 프리다 칼로의 삶 자체이다. 이 공간에 매혹된 베네수엘라 출신의 작가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이 공간이 간직해온 기억과 함께 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과거의) 시공간으로 스며든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현재의) 시공간은, 마침내, 54점의 드로잉과 56점의 유화, 그리고 6년의 리서치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누군가가 살고 있거나, 혹은, 살았던 '집'이라는 내밀한 장소가 가진 기억과 일상성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작업은 프리다 칼로의 삶과 죽음, 사랑과 예술이 중첩되고 교차하는 푸른 집과 운명적으로 조우한다. 프리다 칼로와 그의 푸른 집을 더듬어 가는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여정은 대략 프리다 칼로의 어린 시절과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1907-1925), 프리다 칼로의 사고 이후의 시간과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 미국으로의 이주와 멕시코로의 귀국을 아우르는 시기(1926-1937),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가 이별하고 재결합했던 시기(1938-1946), 마지막으로, 프리다 칼로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기(1947-1954)로 구분된다. 이 방대한 프로젝트는 2014년과 2015년에 마드리드와 파리에서 일부 소개되었고,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전시 톱드르가와 아엔데가의 모퉁이에서(1938-1954)는 디에고 리베라와의 이별과 재결합 이후 프리다 칼로가 죽음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하는 최근의 회화 20점을 포함한 35점의 회화와 새롭게 제작한 기록 영상을 보여준다.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집으로서의 푸른 집의 역사가 시작된

Forgetting is, in a way, very natural phenomenon. We do not remember, forever, all that we have experienced. The time that flows without rest makes the present every moment into the past, and inevitably, the present which has become the past is largely forgotten. Remembering, or not forgetting, therefore, begins with an intentional effort to strive against this natural phenomenon. Memory is not a mere process, or action of remembering the past, the gone. As historian Alon Confino has pointed out, the memory is the "ways in which people construct a sense of the past." Therefore, the method of, and the efforts for, uncovering the past and reconstructing the consciousness on such past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human will and endeavor to confront the irreversible nature of the biological and physical time. In other words, the memory is a human endeavor to continue the current moment in the backdrop of relentless, never ending flow of time in which every moment of the current becomes the past. As such, it is an action of active, and aggressive revolt, in a way.

Now, we have a project entitled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At the corner where Londres street and Allende street cross each other, La Casa Azul (the Blue House), the old house of Frida Kahlo (1907-1954), the representative woman artist of Mexico, is located. In this house, now open to the public as Museo Frida Kahlo, she was born and grew up, loved and was loved, and died in pain. La Casa Azul is a special place that holds all the memories of Frida Kahlo and it is Frida Kahlo's life itself. Captivated by this space, Rosa Maria Unda Souki, an artist born to Brazilian mother and Venezuelan father, was with the memory of this space during the prolonged period of six years from 2012 to 2017. Rosa Maria Unda Souki's (present) time and space permeated into Frida Kahlo's (past) time and space, which has led to the outcome of a series of fifty-four preparative drawings and fifty-six oil paintings, and a video of six-year-long research.

Rosa Maria Unda Souki's artistic journey, which has been originated from her interest in the memory and dailiness of the intimate place of the "house" where someone lives or lived, had a fateful encounter with La Casa Azul where Frida Kahlo's life and death, her love and art overlapped and crossed with each other. Rosa Maria Unda Souki's project of tracing back to the memory around Frida Kahlo and her old house, La Casa Azul, is chronologically divided into four parts: Frida Kahlo's childhood and adolescence till her accident (1907-1925), the time after Frida Kahlo's tragic accident, her marriage with Diego Rivera, their moving to USA and returning to Mexico (1926-1937), the separation and remarriage of Frida Kahlo and Diego Rivera (1938-1946), and the last period of Frida Kahlo's life and her death (1947-1954). The earlier parts of this project were presented in Madrid and Paris in 2014 and 2015. At the exhibition of Atelier Hermes, a series of thirty-five oil paintings including twenty recently completed ones, and a newly produced documentary video are shown under the title of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The period since 1938, when the story of La Casa Azul as a house of Frida Kahlo and Diego Rivera began, is filled with the

1938년 이후의 시기는 프리다 칼로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다웠던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 프리다 칼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파랗게 칠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리하고 넓혀가는 물리적인 변화의 시간 속에서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프리다 칼로의 삶과 그를 둘러싼 관계들, 그리고 그 이면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낸다. 푸른 집에 관한 도상학적 이고 역사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프리다 칼로가 태어나고 머물렀던 푸른 집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따라가며 그 공간과 장소가 담고 있는 기억과 그 기억 너머의 시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자신의 현재 시간과 중첩시킨다.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프리다 칼로와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전율이 프리다 칼로의 기억과 연관된 온갖 상징을 그리는 행위, 즉 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 것이다.

여전히 프리다 칼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의 공간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으로 바라보는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경험은 '그리는 행위'라는 물질적이고 촉각적인 궤적을 통해 화면 위로 고스란히 옮겨진다. 자신의 눈(몸)으로 본 것을 스스로의 몸을 움직여 그리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수행적인 과정 속에서 프리다 칼로의 시간은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시간과 오롯이 중첩되고, 지금, 여기에 되살아난다. 프리다 칼로의 공간으로 들어간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그 공간에 남아 있는 프리다 칼로의 시간(과거)을 자신의 시점(현재)에 그렇게 재구성한다. 그리고, 오랜 리서치와 그에 기반한 회화 작업을 통해,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프리다 칼로의 공간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감각을 현재에 재구성해낸다. 이러한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라는 시간에 고정된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다 칼로의 삶의 매 순간들이 겹겹이 축적되어 남아 있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점으로 재구성하는 '기억의 실천'을 시도한다. 기억의 실천, 잊지 않겠다는 약속, 회화의 오랜 기원을 다시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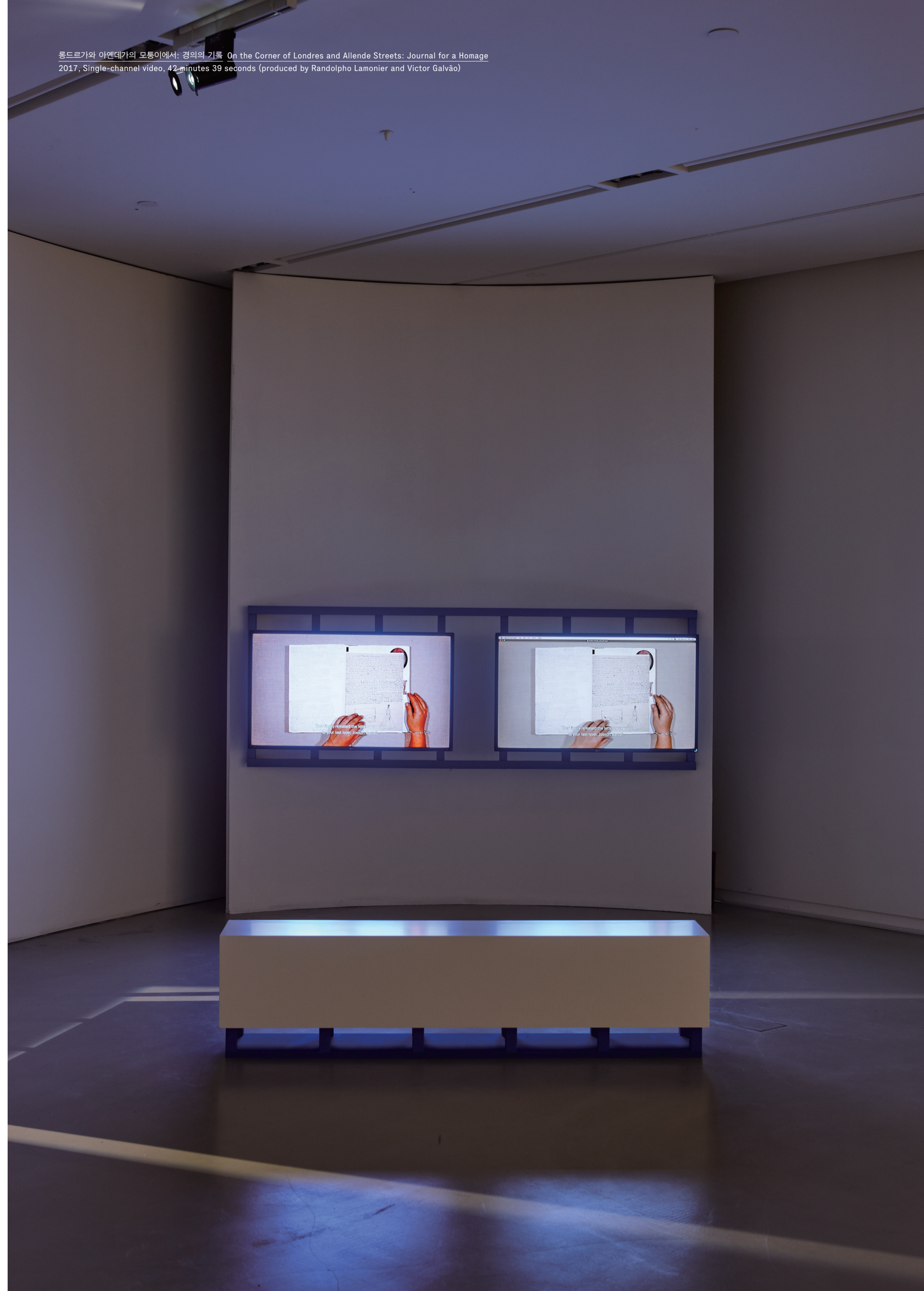
— 김윤경

most painful and most beautiful memories of Frida Kahlo's life. In the flow of time of the house's physical change, where Frida Kahlo painted her parents' house in blue, repaired and extended it twice, Rosa Maria Unda Souki took out Frida Kahlo's life, the relationships surrounding her, and the stories behind her. Based on the iconograph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La Casa Azul, Rosa Maria Unda Souki carefully traces every corner of the house where Frida Kahlo was born and lived, and superimposes the memories of the space and the stories of the time beyond them on her own current time. It is perhaps inevitable that Rosa Maria Unda Souki's tremor that she occupies the same space as Frida Kahlo over the flow of time leads to the act of painting all the symbols associated with Frida Kahlo's memory, to tactile consequences of painting.

Rosa Maria Unda Souki's experience of looking into the space that still retains Frida Kahlo's memory through her own eye and corporal presence is wholly transferred to the canvas through the physical and tactile trace enacted by the "act of painting." Frida Kahlo's time, in the performative process of the act of painting what Rosa Maria Unda Souki sees with her own eye (body), overlaps the time of Rosa Maria Unda Souki and is revived here and now. Rosa Maria Unda Souki, who entered Frida Kahlo's space, reconstructs Frida Kahlo's (past) time in her point in (present) time. Rosa Maria Unda Souki reconstructs a sense of the past at present, which was sleeping in Frida Kahlo's space, through her longstanding research and paintings based on it. The journey of Rosa Maria Unda Souki is not simply a reminder of the story of Frida Kahlo fixed in the time of the past, but rather an attempt of "praxis of memory" that reconstructs the past into the present time through the space where every moment of Frida Kahlo's life is accumulated in layers. The praxis of memory, a promise not to forget, here we see again the origin of painting.

— Kim Yunkyung

롬드르가와 아엔데가의 모퉁이에서: 경의의 기록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Journal for a Homage
2017, Single-channel video, 42-minutes 39 seconds (produced by Randolpho Lamonier and Victor Galvão)



모스크바 재판 (혹은 듀이 위원회)에서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열렸다. 레온 트로츠키의 변론을 위한 미국 위원회가 1936년 그의 혐의와 그에 대한 비난에 대항하고, 반혁명 활동, 사보타주, 살인, 파시즘 세력과의 공모 등의 혐의로 비난을 받는 러시아 공산당 지도층에 맞서기 위해 추진한 계획이었다. 조사위원회는 1937년 3월 멕시코로 넘어가 그의 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10–17일, 레온 트로츠키와 나탈리아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했던 블루 하우스 안에 13명의 청중이 감금되었다. 1937년 9월 조사위원회는 그의 혐의를 벗겨 주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블루 하우스의 안방은 주로 이와 같은 재판을 여는 데 사용되곤 했다. 프리다와 디에고는 당시에 재판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했다.



재판 The Judgment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듀이 위원회의 재판 이후, 디에고와 나탈리아는 여전히 블루 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프리다의 조카인 이솔다 칼로(Isolda Kahlo)는 9세였고, 블루 하우스와 붙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솔다는 자신의 저서 《은밀한 프리다(Intimate Frida)》에서 자신을 아진 ‘삼촌’ 레온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항상 공포에 떨던 기억을 회상한다. 프리다와 디에고는 자신들의 조카인 이솔다와 안토니오의 안전을 위해 부엌 밑 지하실에 숨기기도 했다. 1938년, 리베라와 트로츠키는 정치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디에고가 그에 ‘수작’을 부린 사건을 계기로 절교를 하게 되었다. 멕시코 전통에서 기라는 ‘위령의 날’에 디에고는 트로츠키에게 ‘스탈린’이라고 이를 적힌 설판으로 만든 두 개골을 선물했다. 그러나 레온 트로츠키는 디에고처럼 그 선물이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1939년, 트로츠키는 블루 하우스를 결정적으로 떠나 근처 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얼마지 않아 그 집에서 그는 살해되었다.



언제라도 At any time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프리다는 1935년 노구치와 염문을 뿌렸고 그 외에도 여러 남자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기리 출신의 미국 사진작가인 니콜라스 머레이(Nikolas Muray)와 깊은 관계였다. 1938년, 프리다는 자신의 첫 번째 개인 전시회를 열었을 때 머레이를 만난 뉴욕으로 날아갔다. 부르통(Breton)과 뒤샹(Duchamp)이 주최한 전시회를 위해 1939년 초 파리를 방문할 때까지 둘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두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피카소는 프리다에게 손 모양의 귀걸이 한 쌍을 선물했다. 그 후 프리다와 머레이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머레이의 생각에 그녀의 디에고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고, 자신을 위해 디에고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프리다와 디에고의 결혼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쯤 프리다와 머레이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 프리다는 두 남자와의 이별을 계기로 블루 하우스에 돌아와 평생 살기로 마음먹었다. “Now only my hands remain (Ahora solo me quedan las manos)”은 화가이자 예술가로서 프리다를 기억하는 열정적인 순간 속의 쓸쓸함, 포기, 불평, 고독에 관한 작품이다.



이제 내 손만 남아있네 Now only my hands remain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그 시간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The hours have broken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슬픔과 용기가 함께 할 때 When grief and courage join together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The Commission of Inquiry concerning the accusations brought against Leon Trotsky in the Moscow Trials (or Dewey Commission) was an initiative promoted by the American Committee for the Defense of Leon Trotsky, in the face of the accusations and subsequent condemnation to him, in 1936, and to all the old leadership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of carrying out counter-revolutionary activities, sabotage, murder and collaboration with the fascism. This Commission traveled to Mexico and began his works in March 1937. Between the 10th and the 17th April of the same year, thirteen audiences were held inside the Blue House, which at that moment served as residence for Leon and Natalia. The verdict was issued by the commission in September 1937, finding Leon Trotsky innocent from the accusations brought against him. The main room of the Blue House was prepared to hold such sessions, and Frida and Diego were present and closely followed the whole trial.

After the trial by the Dewey Commission, Diego and Natalia still remained some time in the Blue House. At the time, Isolda Kahlo, Frida’s niece, was nine years old and lived in a house attached to the Blue House. In her book Frida íntima [Intimate Frida], Isolda remembers the constant fear of a possible attack against “uncle” Leon, who was so affectionate with her. At the slightest sign, Frida and Diego sent their nephews Isolda and Antonio to be hidden in the basement under the kitchen. During the year of 1938, Rivera and Trotsky started to disagree around politics and the friendship virtually ended when Diego played a “trick” on him. In the Day of the Dead, as ruled by Mexican tradition, Diego offers Trotsky a sugar skull with the particularity of having an inscription with the name “Stalin”. Leon did not take the present with the same humor as Diego and, in 1939, Trotsky leaves definitively the Blue House and move into a house nearby, where shortly after he would be murdered.

Besides Noguchi in 1935 and other occasional lovers, Frida hold a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Hungarian-born American photographer Nicholas Muray. In 1938 Frida traveled to New York where she has met Muray when she was holding her first solo exhibition. Their affair has continued during her travel to Paris in early 1939 to hold an exhibition organized by Breton and Duchamp. Both exhibitions had a great success and it was in this connection that Picasso presented Frida with a pair of ear-rings in the shape of hands. Along the year the relation with Muray vanishes when the photographer realizes that Frida loved Diego too much and would never leave the latter for him. The lovers relationship ends up at the same time the marriage with Diego starts to collapse. In this climate of breaking up, Frida turned back to live for good in the Blue House. “Ahora solo me quedan las manos” is a work about desolation, abandonment, disaffection and loneliness in one of the more enthusiastic moments in the recognition of Frida as painter and artist.

In 1939 Frida has accomplished one of the more emblematical works of her production, “The Two Fridas”. North-American art historian MacKinley Helm had gone to the Blue House to conduct an interview with her. They were both looking at and discussing the work when there arrived the papers of the divorce sent by Diego. Helm reports that Frida was very melancholic and that when the papers arrived, he had a feeling that she would catch the tweezers that held up the blood flux of one of the arteries in the picture, and would throw them out in the room. Shortly after that, when Frida signed the divorce papers, she ordered the making of a pottery clock, in which it would be inscripted the date “Septiembre 1939” [September 1939] and the phrase “Se rompieron las horas” [“The hours have broken”], symbolizing the break up of her marriage with Diego. This clock and the second that she ordered when she married again with Diego in 1940, are still shown in the Blue House museum.

The title of the work comes from a Hayden Herrera’s sentence in her biography on Frida when referring herself to the works “Las dos Fridas” and “Autorretrato con pelo cortado”[“Self-portrait with cropped hair”], 1940. That year Frida went through a terrible time of loneliness, self-destruction and great economic hardship after getting divorced from Diego. She drank hard and didn’t leave home. She received few visitors and the most appreciated were the little nephews when they came back from school, sometimes bringing single bouquets of wild flowers for her. Ironically, 1940 was one of the most prolific years in her production.

이미 약해진 그녀의 건강은 1940년 내내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디에고는 트로츠키의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샌프란시스코로 탈주한 상태였다. 프리다의 건강 상태를 전해 드은 디에고는 그녀에게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건너 오라고 얘기했다. 그의 요구를 받아 들어 들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의 멕시코 영사관에서 12월 8일 재혼을 했다. 며칠 후, 프리다는 멕시코로 귀국했고, 1941년 2월, 디에고는 혐의가 철회된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블루 하우스로 돌아왔다. 프리다의 요청에 따라 일련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약속 하에 두 화가는 재결합에 합의했다. 각방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요구를 프리다 혹은 디에고가 주장했다. 한번 이혼한 커플의 재혼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두 사람의 지인들은 프리다가 디에고에 보여준 애정, 부드러운 태도, 모성애가 넘쳐 난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아침에 남편을 위해 신문을 읽어 주고, 식사를 차리고, 목욕 준비를 해 주고, 그의 위생 상태, 건강, 옷, 서류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프리다는 디에고를 아이—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대했다.



“일어나, 잠자는 심장아” “Wake up, sleeping heart”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디에고와 프리다가 블루하우스에 돌아오고 나서 몇 달 후 프리다의 아버지 ‘메모(Memo)’가 1941년 4월 사망했다. 메모는 그의 손주들이 그를 부르는 칭호였다. 같은 해, 그녀가 가장 아끼던 앵무새 ‘보니토(Bonito)’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 시기에 프리다는 “보니토와 함께 있는 자화상(Autorretrato com Bonito)”을 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겪으며, 애원조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듯하다. 작품에서 프리다는 상복을 입고 있고, 어깨 위에는 보니토가 앉아 있다. 배경에는 삶의 주기를 나타내는 누에고치, 애벌레, 나비가 식물과 어우러져 있다. 보니토가 살아 있을 때 아침이면 블루 하우스의 거실 뒤에서 날아 다니며 놀았는데, 그 장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고, 돌아가신 후 디에고가 새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설치한 곳이기도 하다.



메모와 보니토는 떠나가고 Memo and Bonito are gone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1942–1943년은 프리다의 건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해인 동시에, 코요아칸 하우스(Coyoacán’s House)에 둘러온 장관을 이룬 해였다. 여러 식물과 나무들 사이로 공작, 원숭이, 앵무새, 사슴, 독수리와 같은 생물감 넘치는 동물들이 하나 둘 서식하기 시작했다. 트로츠키가 머무는 동안 흑시 모를 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집 옆에 마련한 공터가 동식물이 자라는 넓은 정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 즉 선(先) 스페인 시대에 제작한 그의 훌륭한 작품들 중 일부 조각품을 전시하기 위해 디에고는 파라마드 축조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당시 찍은 몇몇 사진에서는 디에고와 프리다가 이 공간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산책 갈까요? I Shall we go for a walk? I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산책 갈까요? II Shall we go for a walk? II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당신을 위한 모든 것 All is for you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In the course of 1940 Frida’s health, which was already fragile, had worsened. Diego ran away to San Francisco after being accused of participation in the murder of Trotsky. With the news over Frida’s health condition, Diego asked her to go to the United States to be treated. In this rejoining, Diego and Frida got married again on the 8th of December of the same year in the Mexican Consulate in San Francisco. A few days later Frida comes back to Mexico and in February 1941 Diego returns to meet her at the Blue House, after the accusations against him had been withdrawn. The second marriage of the painters is performed under a series of conditions at the request of Frida. One of them determined that the spouses should sleep in separate bedrooms and have no sexual relations. In spite of the particulars for this second union, there are many testimonies from people close to the couple reporting on the cares, tenderness and maternal protection Frida dedicated to Diego. She read the newspaper for him in the mornings, set herself to cook his meals, prepared his bath, cared for his hygiene, for his health, his clothes, his documents. Frida treated Diego as a child, as her child.

A few months after Diego and Frida coming back to the Blue House, Memo, as the grandchildren called Frida’s father, dies in April 1941. In the same year, Bonito, her favorite parrot, also dies. During that time Frida paints “Autorretrato com Bonito” [“Self-portrait with Bonito”]. Maybe the commotion itself with the death of the father has brought her to work out such loss through the parrot’s death. On the self-portrait Frida is wearing mourning, with Bonito in her shoulder and against a vegetable background where there are a cocoon, caterpillars and a butterfly, symbolizing the life cycle. In the back of the Blue House dining-room, where Bonito used to play during the morning, it was built a door to Diego’s new room, the same room that once was the study of her father.

The years of 1942 and 1943 were of relative stability in Frida’s health and were years of splendor in Coyoacán’s House. Exuberant animals inhabited in the midst of plants and trees: peacocks, monkeys, parrots, a deer and an eagle. The lot that had been attached to the house in order to avoid possible attacks during Trotski’s stay, was turned into a garden expanse, where Diego had ordered the construction of a pyramid displaying some of the sculptures of his extraordinary collection of pre-Hispanic pieces. Some photos from this time show Diego and Frida strolling in these spaces.

디에고의 딸 과달루페 리베라(Guadalupe Rivera)는 블루 하우스에서 디에고와 프리다와 함께 사는 동안 둘의 애정 어린 모습을 수 차례 봤다고 한다. 회고록에서 그녀는 프리다가 오후에 따뜻한 코코아와 파이를 준비할 때면, 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재미있는 형태의 작은 빵을 굽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디에고와 프리다가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신체를 나타내는 빵 조각 중 하나를 집어 들고는 “너는 뭐로 만들어 졌니?”라고 묻곤 했다고 한다.



너는 무슨 맛일까? You taste like what?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리베라가 살던 집에는 계속해서 동물들이 서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의 지붕과 여러 벽에 매달려 있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장난감과 ‘주다스(Judas)’ (전형적인 멕시코 페이퍼 마쉐(Paper-Mache) 캐릭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창문과 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 오면, 이러한 멋진 캐릭터들이 흔들거리는 광경을 연출했다. 마르타 자모라(Marta Zamora)는 프리다에 관한 자신의 저서 <프리다 칼로: 비통의 붓놀림(EI Pincel de la angustia)>에서 이 캐릭터들은 단순히 인테리어 장식이나 상상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프리다의 진정한 동반자 같았다고 언급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In good company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1943년, 프리다는 “더 에메랄드(La Esmeralda)”라는 학교에서 회화 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시티의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에 가려면 코요아칸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1944년, 프리다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프리다는 자신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녀를 추종하던 학생들로 구성된 ‘프리다 사단(fridos)’이 블루 하우스에 가면, 프리다는 그들에게 주스와 간식을 주었고, 회화 작업 공간을 위해 정원을 여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그녀의 애제자 중 한 명인 기예르모 몬로이(Guillermo Monroy)는 정원에 이젤을 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가베 식물을 그리던 시절을 회고했다. 그러면 프리다는 조용히 다가가 “바로 그거야! ‘Monroycito!’ 노래하는 걸 멈추지 마렴!”이라고 말하며 놀라게 했다고 했다.



노래를 불러줘 Do not fail to sing
2015, Oil on linen, 100 × 70 cm

1945년, 프리다의 건강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척추에 통증이 심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그녀의 조카 이솔다 칼로는 자신의 저서 <은밀한 프리다(Intimate Frida)>에서 고통과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음악을 틀어 달라고 하며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조카 이솔다 칼로는 당시 발레를 배우면서 블루 하우스를 이따금 방문하곤 했다. 어느 날 프리다 칼로는 조카에게 자신의 슬리퍼를 신고 자신을 위해 춤을 춰 달라고 간청했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를 춤추게 해줘! Dance me!
2015, Oil on linen, 70 × 100 cm

Guadalupe Rivera, Diego’s daughter, was witness to many scenes of loving complicity between Diego and Frida during the time she has lived with them in the Blue House. In one of her memories she tells about a recurring scene in which Frida prepared the table in the afternoon with hot chocolate and tarts and small breads of different humorous forms, including forms of body’s intimate parts. When they sat at the table, Frida chose one of these forms and ate while asking: What are you made of?

The house of Rivera was continually inhabited by animals, but also by toys and “Judas” (typical Mexican papier-mâché characters) of different forms and sizes that stayed hanging from the roof and the walls in different places of the house. The wind blew through the windows and doors making these fantastic characters move. Marta Zamora in her book Frida: El Pincel de la angustia [Frida Kahlo: Brush of anguish], states that they were not mere house decorations or imaginary characters, but true companions to Frida.

In 1943 Frida started to work as a painting teacher at the school “La Esmeralda” [“The Emerald”]. She had to go through long routes away from Coyoacán to arrive at the school, which stood in Mexico City’s historical centre. During 1944 Frida’s health began to decay and, in order not to abandon their students, she went on giving the classes in her house. The “fridos”, as her students were called, went to the Blue House to go on studying and Frida offered them juices, snacks and all space they needed in the gardens for working and painting. Guillermo Monroy, one of her closest students, tells about an occasion when he was painting an agave plant at an easel in the gardens while humming. Frida approached silently and surprised him telling: “That’s it, “Monroycito”!, never stop singing...”

During 1945 Frida’s health got considerably worse. The pains in her spine made she spent most of the time in bed. In the book “Intimate Frida”, her niece Isolda Kahlo, writes on how her aunt, despite the limitations by the pain and the immobility, felt a true pleasure with the happiness of others. When she had visitors, she asked that some record was played and loved to see her friends dancing. Her niece Isolda Kahlo, was studying ballet at that time and often paid her aunt a visit. One day her aunt begged her that she put on her slippers and danced for her, but as soon as the “presentation” finished, Frida started to sob.

1945년, 프리다는 회화 작품 “희망 없는 프리다 칼로(Sin Esperanza)”를 제작했다. 회화에서 그녀는 침대에 딱 달라 붙어 있는 모습이다. 풍성한 고기와 생선이 육질로 된 빵 형태로 된 작가의 입 위에 잔인할 정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당시에 그녀가 쓴 편지에서 그녀는 식욕 감퇴와 의욕 저하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해와 그 이듬해, 프리다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1946년, 뉴욕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받게 될 수차례의 수술 중 하나에 불과한 수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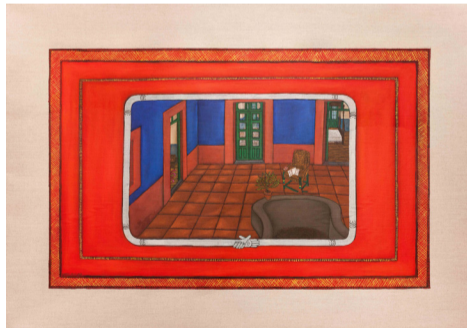
다른 아무것도 Nothing else
2015, Oil on linen, 100 × 70 cm

뉴욕에서 1946년 그녀가 받은 수술은 분명 프리다가 느낀 일련의 큰 육체적 고통 중 하나였다. 15cm 길이의 막대를 척추로 삽입하여 네 개의 척추 뼈를 고정시켰다. 프리다를 간병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크리스티나(Cristina)의 도움을 받으며 프리다는 3개월 간 병상에 있었다. 두 자매는 7월 말 멕시코로 돌아갔지만, 프리다는 자신의 집에서 어느 정도 혼자 머물며, 크나 큰 외로움과 멈추지 않은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프리다칼로 박물관(Museo Frida Kahlo)의 소장 자료 중에는 프리다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사진에서 그녀는 머리를 풀고, 여동생 크리스티나가 선물한 검은 색 중국 파자마를 입고, 블루 하우스의 안뜰 중앙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다. 사진 뒷면에 그녀는 “1946년 최근 수술을 받은 프리다—코요아칸—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강렬한 통증으로 건강 악화”라고 적었다.



이 저주받은 망각의 저택에서... In this damned mansion of oblivion...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카탈로니아 출신의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조셉 바르톨리(Josep Bartolí)는 그녀의 연인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이 둘의 편지가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다. 최초로 공개되는 프리다가 그에게 보낸 편지, 스케치, 글씨가 적힌 사진은 둘의 불 같이 뜨거운 애정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둘은 1946년 뉴욕 병원에서 프리다가 입원한 동안 처음 만나게 되었다. <희망의 나무야 굳세게 버티시오(Arbol de la esperanza, mantente firme)>는 프리다가 바르톨리에게 가르쳐 준 장난기 어린 가사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화가 조셉 바르톨리는 같은 해 멕시코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 노래가사가 새겨진 꽃병에 작은 수목을 넣어 선물로 가져갔다. 블루 하우스의 안뜰 중앙에서 작은 수목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내기도 했다. 둘의 연애는 둘의 마지막 편지가 오고 간 약1949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르톨리는 그녀와 주고 받은 편지를 줄곧 혼자만 간직했고, 수 년간 인터넷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1995년 그가 죽은 뒤, 그 편지들은 그의 상속인이 컬렉터에 팔았고, 컬렉터는 2015년 도일 뉴욕(Doyle New York)에서 경매로 내 놓았다. 하지만 바르톨리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들은 아직 미확인 상태다.



나를 잊지 말아요 Don't forget me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In 1945 Frida paints her work “Sin Esperanza” [“Without hope”]. In the picture she is shown stuck in a bed and a terrible cornucopia of meat and fishes is suspended above the artist mouth in a fleshy cone. In some letters she wrote during that period, she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appetite and the enormous discouragement she felt. During that year and the next, Frida’s health condition worsens to such an extent that, in 1946, she travels to New York to submit herself to one of so many surgeries she would undergo.

The surgery she had undergone in 1946 in New York without a doubt was one of the more violent interventions Frida would suffer. A 15cm-rod was implanted in her spinal column to staple four vertebrae. She was in bed three months under the care of Cristina, who has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to accompany and help the sister. Both sisters come back to Mexico at the end of July, but Frida stays some time still secluded at home, complaining of a great loneliness and of pains that did not cease. In the files of the Museo Frida Kahlo, there is a photo of Frida with loose hair, wearing a black Chinese pajama that Cristina had given her, smoking a cigarette and sitting down on a chair in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Blue House. In the back of the photo she wrote “Frida, recently operated in 1946 – Coyoacán – became worse than ever with pains more intense than nobody can imagine”.

There has recently come to the public the correspondence between Frida and one of her less known lovers, the Catalan painter and illustrator Josep Bartolí. The letters, drawings, captioned photos which were never published before and that Frida sent to his lover and which talk about the madly-in-love relation between them, have started to be published around on the Internet. They had met each other during Frida’s stay in the hospital of New York in 1946. The painting “Arbol de la esperanza, mantente firme” [“Tree of hope, hold yourself firm”] was inspired on a rude song that Frida taught Bartolí. The painter has paid her a visit in the same year in Mexico, and carried with him as a present a little tree in a vase which was inscribed with that line of the song. A photo was taken and sent by Frida to Bartolí, in which she appears with the little tree in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Blue House. The love affair lasted until about 1949, the year of the last letter that is known. Bartolí has kept to himself all the elements of this correspondence and was discreet along the years, hardly agreeing to be interviewed. After his death in 1995 the letters were sold by the heirs to a collector who has auctioned them at the Doyle New York in 2015. The letters that Bartolí wrote her are yet to be found.



퐁드르가와 아엔데가의 모퉁이에서(1938-1954)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Installation view

디에고는 수차례에 걸쳐 외도를 했다. 1948년~1949년, 마리아 펠릭스(Maria Félix)는 디에고가 프리다를 떠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어했던 유명한 연인들 중 한 명이다. 프리다는 냉정하게 디에고의 외도 문제를 처리했다. 프리다가 작성하고 저장한 파일 중에는 현재 박물관에 소장 중인 눈에 띄는 폴더가 있다. 디에고의 연인들이 보낸 편지가 보관된 폴더이다. 그녀는 책등(book spine, 책이 제본되어 가지런히 모아진 부분)에서 "디에고의 사생활. 호기심(Personales Diego. Curiosos)"이라고 적고, 타로 카드 중에서 유혹, 유인, 외도를 상징하는 악마 카드를 장식했다.



디에고의 여인들 The women of Diego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프리다가 다른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프리다는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로, 중의적 의미의 노래를 즐겨 불렀고, 욕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스캔들을 내지 않고자 노력했고, 왕성한 성욕과 변변함과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애정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우아함과 품위는 지키려고 했다. "Las encueraditas"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와 "The earth itself" (1939)의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프리다가 완성 후에 돌로레스 델 리오(Dolores Del Rio)에게 선물했다.



«Las encueraditas» «Nude little women»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1947년, 올가 캄푸스(Olga Campos)는 멕시코 시티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학생이었다. 12월 8일,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제이미 바리오스(Jaime Barrios)의 소개로 블루 하우스에서 열린 디에고 리베라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프리다에 대한 올가의 글이 소개되고 살로몬 그림버그(Salomon Grimberg)가 취합한 내용의 저서 «Confidences»에서 올가 캄푸스는 파티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옌데(Allende) 거리의 보도블럭에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며 ‘콘체로(concheros,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에스타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종교 의식 춤) 댄서들이 디에고에 경의를 표하는 춤을 추었다. 디에고는 문 입구에서 자신의 부인과 나란히 에퀴팔레스(equipales,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멕시코 인락 의자로 할리스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함)에 멋스럽게 앉아 있었다. 춤이 끝나자 모인 관객들은 한 줄로 서서 디에고와 프리다를 맞이 했다.



성자의 날 The day of your Saint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디에고의 선 번째 생일을 맞아 프리다가 준비한 생일 파티는 올가 캄푸스의 «Confidences»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생일 파티는 블루 하우스의 정원에서 형형색색의 등불을 켜고, 색종이로 만든 깃발, 피나타(piñata, 멕시코와 다른 중남미 국가의 어린이 축제(생일 등)에 사용되는 과자나 장난감 등을 넣은 종이 인형)로 꾸며 놓았다. 두 개의 탁자를 피라미드 모형 옆에 배치해 놓고, 근사하고 다양한 음식과 음료수를 차려 놓았다. 손님들은 마리아치(mariachi, 멕시코 민속 음악을 야외에서 연주하는, 독특한 악기 편성의 그룹)의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콘차 미셸(Concha Michel)이 기타를 들고 멕시코의 전통 민중가요인 ‘꼬리도(corridos)’를 연주하자 프리다와 디에고는 익숙한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파티는 그 다음 날 이른 새벽까지 이어졌다. 올가 캄푸스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파티에서 그녀를 처음 본 프리다는 그녀에게 그 주에 또 놀러 오라고 했다.



디에고 만세! Hail, Diego! 2017, Oil on linen, 100 × 135 cm



올가의 방문 혹은 간이 점포 Olga's visit or The little store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Diego had many affairs with other women. Between 1948 and 1949, Maria Félix was one of the most notable lovers for whom Diego has been at the verge of leaving Frida in order to marry her. Frida dealt with these infidelities in a biting way. Amidst the files that Frida organized and stored, there is a still visible folder in one of the museum shelves, containing the letters of Diego’s lovers. She wrote in the book spine: "Personales Diego. Curiosos" ["Personal Diego. Curious"] and decorated it with the Devil card of the Tarot, a card that symbolizes seduction, attraction and infidelity.

It is not unknown the fact that Frida had intimate relations with other women. Frida could be a very spicy woman, she sang double-meaning songs and often used dirty words. However, she did not like scandals and in spite of her sexual vitality, shamelessness and irreverence, she always kept a certain elegance and discretion over these relations. "Las encueraditas" was inspired on Frida’s relations with other women and on the work "La Tierra misma" ["The earth itself"], 1939, which Frida painted and offered to Dolores Del Rio.

In 1947, Olga Campos was a young Argentine student attending doctorate in psychology in Mexico City. On the 8th of December she was taken by her friend Jaime Barrios to the birthday party of Diego Rivera, which was celebrated at the Blue House. In the book "Confidences" where Olga’s writings on Frida were published, under organization of Salomon Grimberg, she describes how extraordinary was the moment when she arrived at the party. In the sidewalk of Allende street and to the sound of drums, a group of indigenous ritualistic dance called "concheros" paid a homage to the painter, who was sided by his wife at the house entrance, sitting down with all royalty on equipales [Jalisco typical chairs]. Upon conclusion of the dance, a crowded people began to take place in a line to greet Diego and Frida.

The birthday party that Frida organized for Diego on his 50 years, has been fully described by Olga Campos in the book "Confidences". The party was celebrated in the gardens of the Blue House, amidst colored lanterns, colored cut-out paper flags and hanging piñatas [containers filled with party favors]. Two tables were disposed along the pyramid sides, offering an extraordinary variety of meals and drinks to the guests, which was having a good time to the sound of the mariachi. The party was over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when Concha Michel picked up the guitar and played the Mexican corridos that Frida and Diego sang and knew by heart. Olga Campos stayed until the party was over, and Frida, whom she had just met, invited her to come for visit the next days.

Olga Campos became one of the closest friends to Frida since they met at the Diego’s birthday party. At every visit of Olga, Frida picked up a little box in glass and tin where she kept the favorite candies. With the enthusiasm of a child, she played of market and called the box "La Tiendita" ("The little store") offering the contents to Olga or to the guests. About the first formal visit to the Blue House, Olga report that she was led by Nano Chucho, who has opened the door for her, taking her to the Pátio de las Ollas [Courtyard of the pots] where Frida used to sunbathe herself. Frida suffered from appetite issues since the surgery in New York and would rather eat sweets and Mexican candies than regular meals. The Pátio de las Ollas is a half-open space placed in the gardens of the house during the 1946 reform according to the design by Juan Gorman. The walls of these spaces are covered by volcanic stones of the region, where clay pans, sea snails and shells are incrusted. Few days before Frida’s death, Olga has phoned her from Acapulco where she was in those days. In that phone call, Frida asked her to bring some shells so she could hear the sea. It was the last time they talked to each other.

프리다의 옷장에는 장난감, 인형, 미니어쳐 가구가 가득했다. 프리다 칼로 박물관의 한 전시실에는 프리다가 소유한 옷, 도자기 인형, 페이퍼 마세 캐릭터로 구성된 작은 장난감 극장이 있다. 올가 캄푸스는 프리다의 인생 후반부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갖고 같이 놀며 그녀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 프리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병상에 있을 때에도, 작은 극장은 침대 위에서 펼쳐졌고, 올가는 인형을 갖고 프리다와 극장 놀이를 했다. 1950년 찍은 사진 한 장은 프리다의 침대 끝에 올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멕시코 시티의 아메리칸 병원에서 프리다가 거의 1년간 장기입원 하던 시절 인형으로 극장 놀이를 하던 장면이다.



인생이라는 작은 극장 Life is a little theater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멕시코인 헤어리스 도그(xoloitzcuintles)는 멕시코 태생의 오랜 희귀견이다. 아즈텍 문명에서는 이를 신성시하며, 아홉 개의 지하 세계에서 견주의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솔로틀(Xolotl, 죽음의 신 혹은 저승사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견주의 행동거지에 대해 평가하는 증인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멕시코인들은 여전히 이 개가 견주의 육체적 통증과 건강문제를 완화해 준다고 믿는다. 프리다와 디에고는 이 개를 나타내는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 즉 선(先) 스페인 시대에 제작한 점토 작품 컬렉션—콜리마(Colima) 지역의 무덤에서 발굴된 작품(200-600 B.C.)—을 소장하기도 했다. 이 조각품 중 한 개가 특별히 아름다운데, 프리다의 침실에서 당시에 세워 놓은 방식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1949년 이후의 날짜 표기가 된 대부분의 사진에서 프리다 주변에 실제로 멕시코 헤어리스 도그가 항상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마스코트 두 마리는 세뇨르 솔로틀(그녀가 이름 붙인 '믹틀란 공화국의 전권 대사(Plenipotentiary Ambassador of the Mictlán Republic))과 세뇨라 솔로친(Señora Xolotzin)이다. 비밀 일기장에서 그녀는 애견을 우아하게 스케치한 후 "솔로틀씨, 처음 뵈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긴 농담 섞인 표현으로, 죽음을 희화화하고 있다.



솔로틀씨, 처음 뵈겠습니다 How do you do Mr. Xolot!?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프리다는 "물이 내게 준 것(Lo que me dió el agua)" (1938) 작품에서 줄리앙 레비(Julien Levy)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여러 개 갖고 묵욕하는 게 좋았고, 이와 관련된 꿈을 꾸었지만, 마치 ‘꿈과 반대의 상황을 꿈꾸는 듯’ 항상 꿈의 결말은 슬펐다고 전했다. 프리다가 1951년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아메리칸 병원을 퇴원한 후, 묵욕하는 일은 특히 괴롭고 힘들게 되었는데, 결코 이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다. 블루 하우스의 집안일을 거들며 시중을 들었던 나노 추초(Nano Chucho)는 프리다의 이복 남자 형제였는데, 그는 프리다를 자신의 품에 아이처럼 안으며, 그녀를 목조에 넣고 씻기며 머리도 빗겨 주었다. 그리고 나서는 부드러운 손길로 옷을 입힌 후에, 애정과 정성을 다해 그녀를 다시 침대에 눕혀 주었다. 프리다의 욕실은 디에고의 요청에 의해 50년간 폐쇄된 상태였다. 2004년 욕실 문을 열자, 깨贅(quetzal,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서, 깃털의 아름다움을 숭상한 고대 마야인들은 그 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형의 벌을 내렸다고 함) 두 마리의 동물 사체가 해부된 채로 발견되었다.



소녀가 반대로 꿈을 꿀 때 When la Niña dreams in reverse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당신 방의 냄새 The smell of your room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Frida’s wardrobe is still replete with toys, dolls and tiny home furniture. One of the rooms of the Museo Frida Kahlo exhibits a small toy theater with cloth, ceramic and papier mâché puppets that belonged to Frida. Olga Campos was the preferred companion of the artist in her last years to play with this particular collection. Even when Frida was in bed with horrible pains that she could not move around, the theater was setup in the bed, and Olga represented her with some puppet. A photo taken in 1950 shows Olga at the foot of Frida’s bed, playing with a little improvised theater during her stay of almost one year long in the Mexico City American Hospital.

The xoloitzcuintles are an old race of rare dogs of Mexican origin. The Aztec considered these dogs as sacred creatures that had the capacity of leading its owner’s spirit through the nine underworlds, serving as witness on its owner’s welldoings in face of the judgment of Xolotl (God of death). Mexican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se dogs alleviate the physical pains and the health problems of its owners. Frida and Diego had a great collection of pre-Hispanic clay pieces that represent these dogs, found in the graves of the region of Colima (200-600 B.C.) One of these sculptures, particularly beautiful, is still to be seen in Frida’s bedroom in the same place it always stood. It is curious to observe that in most of the photos dated after 1949, Frida was found surrounded by real dogs of this race. Two of them were her favorite mascots: Señor Xolotl, Plenipotentiary Ambassador of the Mictlán Republic (as she nicknamed it) and Señora Xolotzin. In a page of her intimate journal, Frida made a graceful drawing of her dog and wrote: "How do you do Mr. Xolotl?". A double meaning joke, as if she was poking fun at Death.

On the work "Lo que me dió el agua" ["What the water has given me"], 1938, Frida told Julien Levy that when she was a child, she liked bathing herself with her toys and dreamt about them, but in the course of time the dreams went acquiring a sad end, as if she "dreamt in reverse". When Frida left the American Hospital in Mexico City in 1951, the bathing became a particularly tortuous and difficult process, which she never complained about. Nano Chucho, servant of the house and Frida’s foster brother, served as a caretaker in that period. He took the the iron corset she had to use, carrying her in his arms like a child, and took her up to the bath where he washed her and combed her hair. Then he softly dressed her and carry her again up to the bed with all affection and tenderness. Frida’s bathroom was closed for 50 years at the request of Diego. In 2004, when the doors were reopened, two quetzals (Mexican birds) were found dissected in the bathroom.

During 1952 Frida was most of the time lying on her bed and she has only two years of life left. Some people related to her said her room had the smell of medicines. I was inspired by this story and a research I made about her medication at this time. Some of the pills and drugs were shown in an exhibi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 Leo Eloesser and Frida. This exhibit took place in 2005 at the Frida Kahlo Museum in Coyoacan.

1953년,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Lola Alvarez Bravo, 갤러리스트 겸 사진작가이자 프리다의 가까운 친구)는 멕시코에서 인생 최초의 유일한 개인전을 프리다 칼로에 받쳤다. 프리다 칼로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있을 때 경의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때, 프리다는 기력어 몹시 쇠약 의료용 코르셋 착용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 프리다의 한 친구는 프리다가 코르셋을 벗으면서 분노에 차 "다시는 안 입어! 무슨 일이 있어도 코르셋은 절대 안 입을 거야!"라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회상했다.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의 갤러리에서 프리다의 전시회는 1953년 4월에 개최되었다. 전시회 오프닝 행사 때 건강 이 나쁜 프리다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의사가 침상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프닝 당일엔 프리다는 평소와 같은 무례함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행사장에 등장했다. 또한 침대를 갤러리 안으로 옮기도록 해서는 그 곳에서 저녁 내내 함께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침대를 전시장 정 중앙에 '전시'하여 관람객들과 침구들이 침대를 에워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는 결코! Never again!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1952년~1954년, 프리다는 자신의 마지막 유작 중 한 작품을 제작하던 중이었다. 바로 화려한 색상의 생동감 넘치는 팔레트에 놓인 수박을 나타내는 대좌, "살아여 만세(Viva la vida)"다. 그러나 이 작품이 진정 삶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가락들 사이로 흘러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의 무기력,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닌 기쁨, 삶, 희망을 위한 노래란 말인가. 다리 절단 수술(1953년 4월~8월)을 받기 전, 프리다의 감정 기록은 매우 컸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어느 순간 기쁨의 절정에 있다가, 또 다른 순간 완전히 무기력하고 우울했다고 했다. 손식 간에 기쁨에서 격한 분노로 감정이 바뀐다는 것이다. 프리다의 전기에 언급되었 듯, 그녀의 친구 아델리나 잔데야스(Adelina Zandejas)는 하이든 헤레라(Hayden Herrera)에게 자신이 블루 하우스의 '항아리가 있는 안뜰(Courtyard of the pots)'에서 디에고와 카를로스 펠리세르(Carlos Pellicer)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프리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디에고의 머리를 향해 유리병을 던졌다고 전했다. 다행히 디에고는 날라오는 병을 피할 수 있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자, 프리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체 왜 그랬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해"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 분열하고 있다. 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일까?"



내가 왜 그래야 하지? Why would I do that?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이 작품 명은 하이든 헤레라의 프리다에 대한 전기에 등장하는 한 장(chapter)의 제목과 같다. 그녀가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나서 직접 쓴 편지에 등장하는 문구다. 다리 절단 수술은 분명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심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다. 일례로 절단된 다리를 감추기 위해, 중국 자수 무늬, 용, 봉으로 장식된 빨간 부츠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희망과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다. 그녀에 늘 기쁨을 주던 어린 아이들을 보기조차 싫어했다. 고통의 울부짖음과 끝없는 침묵 사이를 오가며 하루 하루를 버티어 갔다. 공격과 폭력 상태에 있거나 침묵과 우울한 상태, 둘 중 한가지였다. 한 번은 침대 위의 캐노피에 밧줄을 매달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간호사 주디스 페레토(Judith Ferreto)가 그녀를 막았다.



내 인생에 밤이 오고 있어 It's getting night in my life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In 1953, Lola Alvarez Bravo (gallerist, photographer and Frida's dear friend) devoted to Frida Kahlo in Mexico the only solo exhibition she ever had in her lifetime. It's likely that Lola was afraid that she didn't have much time to live and that she wanted to make an homage while she was still alive. At this time Frida was nearly out of strength and she was exhausted of wearing the medical corsets. Some friend witnessed her moments of anger when she teared her corset off, yelling: "Never again! No matters what will happen, I will never again use corsets!" Frida's exhibition at the Lola Alvarez Bravo's Gallery took place in April 1953. Nobody expected Frida would come to her own opening because of her health. Her doctor prohibited her to leave her bed. But the opening day came and Frida, with her usual irreverence and strong willingness to live, was there: she had made her own bed moved into the gallery and spent the evening in it: It was "exhibited" in the middle of the hall, surrounded by a crowd of people and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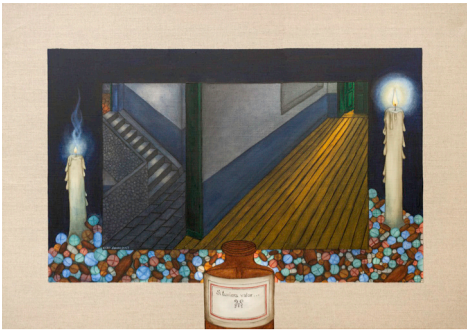
Between 1952 and 1954 Frida worked on one of her last paintings. This well known image representing watermelons in a colorful and vibrant palette, called "Viva la vida" ("Hail, life"). But is this work really a song for joy, life and hope rather than a scream of impotence, desperation, from someone who is realizing that, in spite of her love for life, her own life is flowing through her fingers. During those days before her leg amputation (between April and August 1953), Frida had deep mood swings. Her friends said that she could be euphoric one moment and totally apathetic and depressed the moment after. That she could pass from joy to violent anger in a second. Her friend Adelina Zandejas told to Hayden Herrera — related in her Frida's biography — that she was once having lunch with Diego and Carlos Pellicer in the "Patio de las Ollas" at the Blue House, when Frida suddenly arrived and threw a glass bottle straight at Diego's head. Fortunately Diego avoided the blow. When the bottle smashed in pieces on the ground, Frida realized what she had done and started crying: "Why would I do that? Why did I do it? I'd rather die than do that." In her diary she wrote: "I'm in disintegration. Why am I killing myself?"

This title comes from that of a chapter of the Hayden Herrera's biography of Frida inspired from a letter she wrote after her leg amputation. This amputation was without a doubt the unbearable event. She tried hard to overcome it with her indefatigable enthusiasm: she ordered for example some red boots, embellished with Chinese embroideries, dragons and bells to dissimulate her lost leg. But it didn't work. She couldn't bear anymore. She had lost hope and her desire to live. She didn't even want to see kids anymore, what usually filled her with joy. She spent her days between cries of pain and endless silences. She was either aggressive and violent or silent and depressed. She had once tried to commit suicide with a rope on the canopy of her bed, but the nurse, Judith Ferreto, had stopped her.

프리다의 방은 블루 하우스의 2층에 위치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실 옆에 위치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자살, 약품 과다복용, 오래 동안 앉아 있던 심신 미약과 순환기 문제로 인한 폐 색전증, 사망 전주에 걸린 폐렴 등. 추측도 다양하고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프리다가 어렸을 때부터 블루 하우스에서 운전사로 일한 마누엘(Manuel)은 다른 증언을 했다. 처음에는 디에고가 자신의 샌 앤젤 작업실(San Angel workshop)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었고, 마누엘이 다음 날 매우 이른 시간에 그를 찾아가 프리다의 죽음을 알려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는 디에고가 블루 하우스에서 그날 밤 잤고, 자신에게 사망 소식을 알려 주며, 블루 하우스의 1층 거실 옆의 자신의 방에서 잠든 운전사 마누엘을 깨웠다고 했다. 간호사 마야(Ms. Maya)는 프리다가 디에고에게 8월 결혼 기념일에 반지를 건네어 줄 때, 자신이 그날 살아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한 프리다의 들었다고 했다. 잠시 후, 디에고는 간호사에게 자리를 비켜 줄 것을 요청했다. 마야는 프리다에게 매일 저녁 약을 주고, 약 알의 개수를 세고 나서는 그날 밤 프리다가 복용해야 하는 약을 분리하는 일을 맡았다. 디에고는 약을 받고, 마야에게 가서 쉬라고 전달했다. 그날 밤, 디에고가 직접 약을 프리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운전사는 마야를 깨웠고, 간호사가 가서 보니 프리다는 침대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마야는 약병 한 개에서 11개의 알약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오전에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구를 마르타 자모라에게 적어 주었다. 프리다가 죽기 몇일 전, 고통 어린 비명을 지르던 어느 날 밤, 집에 있던 라 티볼(Mrs. Raquel Tibol)은 디에고도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았고, 울음 중간 중간에 "내가 용기가 있으면, 고통에서 빠져 나오도록 프리다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멕시코 전통에서는 11월 2일이 위령의 날이다. 하루 전날에는 죽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기리며 "작은 천사들의 날(El día de los angelitos)"을 보낸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영혼이 가볍기 때문에 달려가고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멕시코에서는 '만수국'(Cempazúchitl)이라는 밝은 주황색의 꽃으로 길을 만들어 이 꽃의 밝은 색으로 인해 작은 천사들이 "빛"을 보게 된다고 한다. 프리다는 죽는 그날 까지 '니냐 프리다(Niña Frida)—작은 소녀 프리다'로 불리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최소 세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마르타 자모라는 ,프리다 칼로: 비통의 붓놀림(El Pincel de la angustia),에서 프리다가 코요아칸에서 7월의 어느 아침에 태어나고, 또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코요아칸은 폭우가 잦아 우울함도 씻어 내려갈 정도다. 프리다는 일생의 마지막 달 자신의 침대 하나를 테라스가 내려 보이는 침실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달에 그녀는 테라스와 정원을 내려다 보며, 새들의 지저귐과 분수의 물소리를 감상했다.



만약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면... If I could have the courage...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Frida's room is in the upper part of the Blue House, where one can access by the stairs next to the dining room. It was said she committed suicide; it was said she had accidentally overdosed medication; it was said it was a pulmonary embolism due to her fragile state of health and circulation problems she had suffered for a long time; it was said it was due to a pneumonia she had caught the week before her death... The stories are diverse and contradictory. The driver Manuel — who had been working in the house since Frida was a child — gave different statements: saying first that Diego had slept that very last night at his San Angel workshop and that Manuel went to get him very early the next day to announce Frida's death; saying then that Diego had slept in the Blue House that night and had given himself the news, waking the driver in his room — the one that gives on the dining room in the low part of the House. Nurse Ms. Maya had heard Frida say, when offering Diego a ring for their wedding anniversary celebrated in August, that she did not think she would come alive on that date. Soon after Diego had asked the nurse to withdraw. Mrs. Maya, who used to give Frida medicine every night, counted the pills and separated those that Frida should take that night. Diego took the medicine and told Mrs. Maya that she could go to rest, because it was he who was going to give the medicine to Frida that night. The next day, the driver awakened Mrs. Maya and she found Frida dead on her bed. Mrs Maya assured Marta Zamora in a statement that she had noticed this morning that she was missing 11 pills from one of the medicine vials. A few days before Frida's death, during a night she was screaming in pain, Mrs. Raquel Tibol, who was in the house, had seen Diego crying like a child while listening to the cries of his wife, and between sobs he said to her: "If I have the courage, I will kill her so that she would not suffer anymore..."



그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을 때 When they came to get you
2017, Oil on linen, 135 × 100 cm

In the Mexican tradition the day of the dead is November 2nd. The celebrations begin the day before called "El día de los angelitos" (The day of the little angels) dedicated to the children who have died. Children are said to have a lighter soul, so they run and arrive faster. For the souls of children who come to visit are not lost on their way home, the Mexicans make a path of bright orange flowers called Cempazúchitl: they say that thanks to the very bright color of these flowers, the little angels will come to see their "light". Frida was called until the end of her days the Niña Frida, Frida the little girl. And she had had at least three miscarriages throughout her life.



분수의 물소리 The sound of the fountain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프리다가 사랑한 시점부터 블루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녀의 사랑 사건 마저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의 전기를 쓴 네 명의 저자—하이든 헤레라, 올가 캄푸스, 이솔다 칼로, 마르타 자모라—는 자신들의 저서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 중 한 이야기는 그녀가 사랑한 날 오전에 관한 것이다. 디에고는 프리다가 옷을 갖춰 입고 유리와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속에 보관한 보석으로 치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의 요청에 따라 루스(Ruth, 디에고의 딸),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 엘레나 뽀니아토프스카는 그가 요청한 보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디에고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딸은 자신의 보석을 가져와 프리다의 몸을 덮었다. 소름 끼치는 이것만이 아니다. 프리다의 시체를 화장터에 안치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여러 반지를 빼서 가져갔다고 한다.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는 1968년 프리다 칼로 박물관에서 제작한 첫 번째 도록의 사진과 그녀가 사랑한 날 오전에 찍은 사진 속에서 자기로 만든 손 두 개의 모양의 반지 곁이 등장한다. 프리다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반지곁이는 보이지 않았다.



까마귀의 시간 The hour of the crows
2017, Oil on linen, 70 × 100 cm

올가 캄푸스는 그녀의 죽음을 가장 처음으로 발견했다. 프리다가 죽은 날 오전, 올가가 사랑 소식을 듣고 블루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프리다의 몸으로 다가가 얼굴에 입맞춤을 했고 그 순간 얼굴의 섬세한 숨털이 움직인다고 느꼈다. 그 후 올가는 신경 쇠약증에 걸렸고, 프리다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오열하자 방 밖으로 실려 나갔다. 멕시코 예술 궁전(Palacio de Bellas Artes)에 안장한 프리다의 시체를 옆에서 지켜던 디에고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프리다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확신하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하던 행동을 모두 멈추었고, 자신의 양팔에 난 털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에, 의사가 아내의 죽음을 입증한 후, 양 손의 정맥을 끊은 다음, 몸에 더 이상 혈액이 순환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의사의 확인이 있는 후에야 디에고는 마침내 프리다가 화장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그녀의 죽음을 두고 기상천외하고 소름 끼치는 일화가 많다. 그녀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당신이 곤두섰기 때문에 Because you bristled
2017, Oil on linen, 100 × 70 cm

디에고의 딸 과달루페는 블루 하우스에서 디에고와 프리다 부부와 함께 1년 반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프리다의 축제(Las fiestas de Frida)》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프리다는 워령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소치밀코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초에 불을 붙여 올 위에 띄운 배를 밤에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코요아칸에 위치한 프라다 칼로의 집은 프리다가 사망한 후 4년이 지나고 디에고가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디에고는 부부와 친분이 깊던 시인 카를로스 펠리체르가 기획한 여러 변경사항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가 살던 '푸른색의 집(Casa Azul)' 즉, 블루 하우스는 1958년 대중에 공개되었다. 그 이후 박물관이 방치되어 다시 개관하게 되었다는 여러 복잡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회자되었다. 1990년 이후 힐다 트루히요(Hilda Trujillo)가 박물관을 관장해 오고 있고,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으로 변모한 생각은 예술적 유산과 기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지만, 그 곳에 살던 두 화가의 은밀한 공간에 깃든 애정과 생동감을 그대로 전하기엔 역부족이다.



난 잊지 않아요 I don't forget
2017, Oil on linen, 100 × 100 cm

A number of things have disappeared from the Blue House since the death of Frida, even the very day of her death. Her four biographers, Hayden Herrera, Olga Campos, Isolda Kahlo, and Marta Zamora, tell stories about this in their books. One of these episodes concerns the morning of her death: at the request of Diego, who wants Frida to be dressed and adorned with the jewels he had given her locked in boxes of glass and wood, Ruth (Diego's daughter), Lola Alvarez Bravo and Helena Poniatowska realize that the requested jewelry has disappeared. To calm Diego, taken with great anger, his daughter goes to get her own jewelry to cover Frida's body. In another terrible episode, it is said that when Frida's body was brought to the place of cremation, people there ripped off rings of her fingers... In the photos made by Lola Alvarez Bravo on the morning of his death, as well as on those of the first catalog made by the Museum in 1968, we see a ring-holder in the shape of two porcelain hands: it was on the dressing table from her room and has since disappeared.

Olga Campos was the first to notice. On the morning of Frida's death, when Olga arrived at the Blue House, after learning the terrible news, she approached Frida's body to kiss her and realized at that moment that delicate hair of the face had bristled. Olga had a nervous breakdown, screaming that her friend was still alive, and had to be removed from the room. During the vigil of Frida's body at the Palacio de Bellas Artes, Diego suddenly seemed worried. He panicked and stopped everything, assuring that Frida was still alive: he had seen the hairs of his arms bristle. A doctor had to certify the death of his wife, making cuts in the veins of her hands and thus prove that there was no circulation of her blood. Only after the doctor's certification, Diego finally accepted that Frida's body was cremated. Perhaps these episodes, awesome and terrible, are not strange: Frida was such a living soul.

Lupe, Diego's daughter, who had lived in the house with the couple for a year and a half, tells in her book, "Las fiestas de Frida", that her father and Frida liked to go to Xochimilco for the festival of the dead and see in the night the boats that floated on the water with burning candles for the soul of loved ones. Frida Kahlo's house in Coyoacán became a museum just four years after Frida's death and one year after Diego's death, who could not see the changes directed by the poet Carlos Pellicer, a close friend of the couple. Casa Azul - Frida Kahlo Museum and Diego Rivera - opened to the public in 1958 and since then complex and numerous stories of abandonment and reopening have followed one another. Since 1990 Mrs. Hilda Trujillo has taken the direction of the Museum and a remarkable work of preservation of the memory was put in place. A house that becomes a museum can happily preserve heritage and memory, but in no way the intimacy and vitality of what had been the intimate space of its inhabitants.

롱드르가와 아엔데가의 모퉁이에서(1938-1954)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Installation view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 프로그램, 현대 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토-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men and women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ndation operates nine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 –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3* is the Fo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z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The Fo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영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to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to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to 7 PM

Review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entitled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by Rosa Maria Unda Souki held at Atelier Hermès from 8 December 2017 to 4 February 2018.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Catherine Tsekenis
Head of Editorial Image and Publications: Frédéric Hubin
Head of Project: Clémence Fraysse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Exhibition Assistant: Hong Suhhee

Exhibition Curator & Editor: Kim Yunkyong
Text: Kim Yunkyong
Translators: Choi Kiwon (from English to Korean), Cid Knipl Moreira and Laure Schaufelberger (from Portuguese to English)
Graphic Designers: Kang Gyeongtak, Jang Yoonjung (a-g-k.kr)
Photographers: Nam Kiyong (Installation view), Victor Galvão, Daniel Pinho



About the Next:

김민애는 주변의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부터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게 되는 다층적 틀, 혹은 시스템들을 전적으로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미술 안에서 미술하기'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김민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음 전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Kim Minae has had an interest in indirectly betraying multilayered frames or systems that an individual gets to experience and recognize, from the invisible boundaries to the generally accepted social consensus. Atelier Hermès is now preparing for its next exhibition with Kim Minae's new project that raises a question of "art-doing within art."

ATELIER
HER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7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롱드르가와 아엔데가의 모퉁이에서(1938-1954)
2017.12.8 - 2018.2.4

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December 8, 2017 - February 4, 2018